

중국 조선족학교 민족문화 교육과정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해영*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새 교육과정 실행 이후 진행된 조선족학교 중심 민족문화 교육과정 개발의 현황을 기반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그동안 조선족학교는 국가, 지방 및 학교 교육과정의 3급 관리체계를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을 시도해왔다. 특히 연변지역과 기타 조선족 산재지역의 조선족학교들은 지방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으로서의 민족문화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천 및 교육과정 개발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민족문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실천은 비교적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화와 관련된 개념 정의가 모호하고,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이 규범화,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고, 교사의 자질과 민족문화적 소양이 부족, 민족문화 교육과정 개발 자원의 수집과 비치의 부진, 개발된 민족문화교육과정 실행의 정책적, 행·재정적 지원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단위 학

* 중국 연변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주제어: 조선족학교, 민족문화, 교육과정, 원칙
朝鮮族學校, 民族文化, 教育課程, 原則

교에서 학교 중심 교육과정으로 민족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서의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행 두 방면으로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선족학교 중심 민족문화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 우선 관련된 다양한 개념에 대해 명확히 하고, 교육과정 개발이 규범화, 체계화되도록 노력하며, 교사의 확보와 지속적인 교사 연수를 도모하고, 학교와 교사의 민족사명감과 헌신정신을 유발, 학교의 교육철학과 운영이념을 반영, 개발과 실행 및 연구를 병행하는 등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중국의 한 소수민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민족문화라는 매개체로써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선족은 반드시 중국조선족이라는 총체적인 정체성을 형성해야만 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한민족은 반드시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조선족의 문화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며 진정 한민족의 닛을 꾸준히 중국이라는 대국에서 당당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조선족학교는 반드시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민족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1. 서론

중국 조선족이 보존 및 전승해 온 민족문화 속에는 조선족 특유의 민족성과 정신적 재부가 담겨져 있다. 조선족은 그러한 문화적 토양 속에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중화민족과의 유대감을 확인해 왔다. 조선족은 현재 중국소수민족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자체의 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민족교육체계를 소유하고 있다. 이 민족교육체계에는 중화민족문화 전체를 포괄하는 국가교육과정과 지역적이고 소수민족적인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육과정, 그리고 한 학교 자체만의 문화와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이 어우러져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설계는 한 민족 또는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기 마련이다. 국가적이고 지역적이며 민족적인 문화를 차

세대에 전승하는 가장 주된 경로가 바로 학교교육이고 이는 교육과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진행된다. 그러므로 한 학교에 있어 교육과정에 대해 얼마나 명확하고 투철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속에 녹아 있는 문화를 얼마나 잘 전승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다.

중국은 2001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¹⁾ 이번 교육과정개혁은 국가교육과정, 지방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3급 관리체제를 갖추었다. 이는 종래의 중앙 집중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위계적인 교육과정을 개혁함으로써 교육과정 개발의 상당부분의 권한을 지방과 학교 당국에 이임한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에서는 지방교육과정을, 각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을, 또한 각 민족은 민족특색의 교육과정을 개발 및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와 시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지방 내지는 민족, 나아가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데 매우 유리하였다. 또한 세계화 및 지식경제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적 특색, 민족적 특색 및 학교 특색을 모색하고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 것이다.

조선족교육은 중국의 소수민족교육으로 새 교육과정 도입 이후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특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따라서 지방교육과정과 조선족학교의 교육과정의 핵심내용은 민족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조선족교육은 그 자체만으로도 민족교육의 특색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그 창의적인 경쟁력의 모색이 결핍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교육과정개혁을 통해 새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에도 단위 학교 맞춤형의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민족 단위의 교육과정의 개발에 만족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조선족의 민족문화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 그 연구방향은 대개 다음과 같다. 조선족 민족문화의 사회적 보존과 발

1) 中國教育部(2001). 『基礎教育課程綱要(試行)』.

전 및 개발에 관한 연구²⁾, 조선족 민족문화에 관한 이론적 접근³⁾, 학교 교육을 통한 민족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연구⁴⁾ 등이다. 그 가운데

-
- 2) 許明哲(2002), 『論當代 延邊朝鮮族文化 發展戰略』, 『延邊大學學報』, 中國延邊大學校, 35(1), pp. 41-45; 韓海連(2013), 『延邊朝鮮族 歷史文化資源 保護與 開發 研究』, 中國 延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李鳳海 外(1998), 『中國朝鮮族文化與 社會主義精神文明 建設』, 『延邊大學學報』 1998(3), 中國延邊大學校, pp. 128-136; 景志英(2010), 『試論傳承和創新朝鮮族民族文化』, 『延邊黨校學報』 25(2), pp. 71-72; 趙剛(2012), 『朝鮮族文化的 性質, 特徵及 其 發展前景』, 『大連民族學院學報』 14(2), 中國大連民族學院, pp. 103-106; 宋建(2013), 『中國朝鮮族教育的 歷史 傳承與 發展戰略』, 『吉林省教育學院學報』 29, 吉林省教育學院, pp. 93-95.
- 3) 魯朱哲(1997), 『朝鮮民族文化研究』, 沈陽: 遼寧民族出版社; 金東勳 外(1990), 『朝鮮族文化』, 吉林省教育出版社; 孔德俊(1999), 『簡述朝鮮民族文化對其教育的促進』, 『民族教育研究』 1999(3), 中國 中央民族大學校, pp. 93-94; 金華(2004), 『中國特色朝鮮族文化研究』,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 4) 全鑫(2013), 『學前階段 朝鮮族文化 課程資源開發與 利用研究』, 中國 西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金紅仙(2012), 『延邊地區 朝鮮族 中小學 民族文化 課程開發研究』, 中國 延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陳玉偉(2010), 『學校教育中 民族 傳統文化 傳承 現狀研究-以吉林省 朝鮮族 集居區與 散居區 初中爲例』, 中國 延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丁月牙(1999), 『社會變遷中的 朝鮮族 傳統文化 教育』, 『中國民族教育』 1999(4), pp. 40-41; 박금해(2004), 『중국에서의 조선족의 교육과 문화』,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14,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97-112; 羅正日(2012), 『黑龍江 朝鮮族學校 民族文化 教育教學 實施與 成就』, 『黑龍江民族叢刊』 2012(3), pp. 162-166; 俞永虎·金明鐘(2012), 『開展 朝鮮族文化教育的 原則與 目標』, 『中國民族教育』 2012(5), pp. 9-10; 金文(2013), 『朝鮮民族文化教育 校本課程 建設 趣向의 研究』, 『現代教育科學·中學教師』 2013(2), pp. 62-63; 朴婷姬·金玲(2012), 『散雜居地區 民族教育與 文化傳承 探析-以吉林省 吉林地區 朝鮮族學校爲例』, 『延邊大學學報』 45(6), pp. 132-138; 崔英錦(2013), 『東北朝鮮族學校 傳統文化課程의 實施』, 『教育評論』 2013(3), pp. 129-131; 崔英錦(2013), 『新時期 朝鮮族 傳統文化의 教育傳承』, 『民族教育研究』 3(24), pp. 85-88; 崔英錦·姜楠楠(2014), 『我國朝鮮族學校 傳統節日儀式 傳承 現狀與 思考』, 『民族教育研究』 3(25), pp. 115-118; 崔英錦(2014), 『新時期 朝鮮族節日文化 傳承動態及 教育策略』, 『湖南師範大學教育科學學報』 13(4), pp. 34-37; 金香花·朴婷姬(2013), 『民族聚居區 學校教育與 文化傳承 研究-以延邊朝鮮族學校爲例』, 『大連民族學院學報』 15(4), pp. 345-348; 崔成學(2014), 『朝鮮族傳統文化傳承 及 教育現代化 面林의 問題與 對策』, 『延邊大學學報』 47(4), pp. 41-47; 김해영(2010),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문화교육을 위한 디지털스토리텔링』

데서 특히 민족문화교육을 학교 교육적 차원에서 다룬 연구들이 많았는데 이 연구들은 또 학교교사들의 실천연구와 학자들의 학술연구로 나뉘게 된다. 학교교사들의 연구는 대부분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족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그 실천경험 또는 반성적 고찰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자들의 경우 전반 조선족학교의 민족문화교육의 실재를 통해 이론적 또는 실천적 제안을 주된 논의로 하였다. 따라서 학교 교사들의 경우 구체적인 실천경험을 일반화 또는 보편화하지 못하고 학자들의 경우 구체적인 학교에서의 민족문화교육의 실재를 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폐단이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전반적인 민족문화의 전승이나 또는 교육의 방향적인 논의는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단위학교의 교육 및 교학 실정, 특히 단위학교에서 학교 중심 민족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것이 전반 조선족학교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학교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⁵⁾으로 민족문화 교육과정개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고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의 원칙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선족학교에서 민족문화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현재 개발 및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과 검토, 이를 통한 문제의 발견 및 민족문화 교육과정 개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실제 개발 방법 및 향후 개발에서 개선 방향 등을 주된 연구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조선족학교에서 민족문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교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다.

적용』,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 5, 한국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 pp. 261-289.

5)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학교 중심 교육과정의 의미는 조선족학교가 자체적으로 민족문화를 교육내용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 및 실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것은 똑같이 민족문화를 내용으로 하지만 지방적 행위인 연변조선족자치주 지방교육과정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2. 조선족학교 민족문화 교육과정 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2.1. 민족문화의 개념

문화는 다양한 학문영역의 연구대상인만큼 그 개념에 대한 정의 또한 다양하다. 인류 특유의 생존방식으로 정의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인류의 사유방식, 행동양식 및 제도유형을 아우르는 생활방식으로 정의하기도 한다.⁶⁾ 또한 인류가 물질 및 정신적 생산과정에서 추상화한 일종의 원칙체계 및 그 원칙체계의 현실, 정보의 전파 내지는 보존의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최초로 전문성과 포괄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타일러(泰勒)의 문화에 관한 정의⁷⁾, 또는 이 정의를 보완한 미국 문화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의 정의⁸⁾를 참고한다면 문화의 정의에는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나는 인류의 정신적 재부를 아우르는 정신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가 실질적으로 창조해낸 수많은 물질들의 총화인 물질문화이다. 문화는 이와 같은 정신적 재부와 물질적 재부를 주요 내용으로 그 내용에 더해 그것에 대한 보존 및 전송, 재창조의 과정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생성과 함께 고정불변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가치와 내용이 발전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화의 맥락에서 민족문화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민족

6) 王軍(2007), 『教育民族學』,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p. 270.

7) 타일러는 “원시문화”(1871)에서 처음으로 문화를 개념화하였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문화는 광범위한 민족학적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람이 습득한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습관풍속 및 기타 능력과 습관의 복합체”라고 했다(王軍(2007), p. 270).

8) 미국의 사회학자와 인류학자들은 타일러의 문화 개념을 재검토 및 수정 보완하였는데 그 보완의 핵심이 물질 문화적 부분에 대한 추가이다. 따라서 “실물”(實物)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다(王軍(2007), p. 270).

문화란 한 민족이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형성한 정신적 재부와 물질적 재부의 총화 및 그것에 대한 보존 및 전승, 재창조의 과정의 복합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중국의 소수민족문화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릴 것인가? 이 역시 이상 민족문화의 정의를 바탕으로 소수민족이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축적해온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문화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그것은 중화민족문화의 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소수민족은 자체만의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 및 가정교육 등 다양한 형식으로 스스로의 문화를 전승하면서 그 정체성을 확립한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소수민족은 그 어떠한 형식과 형태로든 자체 민족의 문화를 습득해야 하고 이를 중화민족문화와 연결시켜야 한다. 특히 학교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는 조선족과 같은 소수민족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2.2. 민족문화와 교육과정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은 한 민족의 문화를 전승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교육과정은 일종 특수한 문화형식으로 그것은 한 민족의 문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시 그 민족의 문화가 민족구성원들에 대한 요구를 교육과정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이는 국가교육과정과 중화민족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중국은 주류민족인 한족을 포함한 56개 민족의 통합체이므로 다원일체(多元一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문화 속에는 주류민족인 한족의 문화 외에 55개의 소수민족 문화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교육과정은 중국 문화의 “다원일체” 특징 속의 일체(一體)를 대표하는 중화민족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고 지방교육과정이나 학교교육과정은 문화의 다원성(多元性)을 인정하고 표현하기 위한 대안적 노력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조선족학교와 같은 소수민족학교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을 통해 중화민족의 문화를 전승해야 할 뿐만 아니

라 본 민족과 본 지방의 문화를 전승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소수민족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해 중화민족의 문화와 본 민족과 지방의 문화를 동시에 학생들에게 전승시키고 있는 셈이다.⁹⁾

중국에 있어 학교 교육과정은 민족의 부흥과 창조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문화에 대한 보존과 전승, 세계 기타 민족의 문화에 대한 수용과 융합을 요구한다. 소수민족교육의 경우 본 민족과 기타 민족의 문화에 대한 전승과 창조를 통해 중화민족문화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한다. 교육과정을 통해 선택, 전승되는 민족문화의 내용은 필연적으로 학생들의 문화관, 기타 민족에 대한 이해와 태도, 그리고 학생 개인의 사상적 보완이 가능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미래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은 민족문화의 전승과 선택, 차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중국의 미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중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교육과정, 지방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3급 관리체계는 곧 다문화시대의 문화적 융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소수민족은 스스로의 민족교육을 통해 본 민족에 해당되는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문화를 선택하여 지방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선족을 비롯한 소수민족학교와 교육과정 및 소수민족의 문화 사이의 관계는 중국에서 소수민족학교와 교사로 하여금 그 책임감이 의무적인 단계를 초월하여 사명감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2.3. 민족문화교육 관련 정책적 지원

중국공산당 17차 대표대회(2007)에서는 “사회주의문화의 대 발전 및 대 번영을 추진할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2011년 중국공산당 17차 6중

9) 조선족사회와 민족교육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김해영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김해영(2014), 『연변조선족사회와 민족교육의 관계에 대한 고찰』, 『교육사상연구』 28(1), 한국교육사상연구회, pp. 97-119).

회의에서는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문화의 대 발전과 대 번영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을 통과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문화강국전략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는 소수민족지역으로 하여금 민족문화를 대거 발전시키고 소수민족의 학교교육에서 민족문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바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는 “민족교육을 강조하여 선명한 시대적 특징과 지역적 특색을 갖춘 중국조선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교육조례를 수정하였다.¹⁰⁾ 이와 같은 정책적 배경 하에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국에서는 2007년 10월 “전주조선족중소학교에서 조선족민족문화교육을 실행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의 조선족학교에서 민족문화교육을 전개할 것을 결정, 조선족 민족문화교육을 조선족학교의 지방교육과정으로 편입시켰다. 그런가하면 조선족 산재지역 조선족학교의 경우 길림성은 길림성 소수민족교육조례¹¹⁾에 따라, 흑룡강성은

10)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족교육조례』 제1장 제4조: 조선족교육은 현대화, 세계화, 미래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조선족의 우수한 역사문화전통을 전승 및 발양하고 각 민족의 문명 발전의 성과를 수용, 조선족교육의 혁신을 부단히 추진함으로써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 사회, 민족 발전의 수요에 부응한다(朝鮮族教育要面向现代化, 面向世界, 面向未来, 继承和弘扬朝鲜族优秀的历史文化传统, 吸收各民族文明发展的一切成果, 不断推进朝鲜族教育的创新, 以适应自治州经济, 社会, 民族发展的需要).

제3장 제23조 조선족학교는 민족단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조선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교육을 중요시해야 하는바 조선족의 어문, 역사, 음악, 무용, 체육, 미술 등 민족특색이 있는 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二十三条 朝鲜族学校应加强民族团结教育, 重视朝鲜族优秀传统文化传统教育, 加强朝鲜族的语文, 历史, 音乐, 舞蹈, 体育, 美术等具有民族特色的学科教学).

11) 『길림성소수민족교육조례』 제12조 소수민족학교는 응당 소수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교육을 중요시해야 하며 소수민족특색 교육과정의 개설을 제창하여야 하며 소수민족 특색을 갖춘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야 한다. 이로써 학생들의 본 민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강화하며 소수민족 문화예술과 전통체육 등 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第十二条 少数民族学校应当重视少数民族的优秀文化传统教育, 提倡开

흑룡강성민족교육조례¹²⁾를 통해, 요녕성 역시 관련 정책에 근거하여 정도부동하게 소수민족학교에서 소수민족문화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였다.

2.4. 조선족학교 민족문화 교육과정 개발의 현황

2006년 12월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국의 주최 하에 연변대학 사범분원 부속소학교에서 “조선족 전통예절교육”을 주제로 하는 민족문화교육 현장회의를 개최하였다. 2007년 10월에는 훈춘시 제5중학교에서 “조선족 민족역사교육”을 주제로 하는 민족문화현장회의를 조직하였다. 이와 같은 현장회의의 형식으로 두 학교의 민족문화교육 경험과 학교교육과정 및 교재를 공개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국에서는 민족문화교육을 진행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제시, 지방교육과정으로 편입 및 교과서를 편찬하였으며 연변의 조선족학교에서는 본격적인 민족문화교육이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각 단위 학교에서는 민족문화를 내용으로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设具有少数民族特色的课程, 开展具有少数民族特色的各种活动, 增进学生对本民族的认识和了解, 促进少数民族文化艺术和传统体育等事业的发展。

- 12) 『흑룡강성민족교육조례』 제12조 제2목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본민족의 언어를 보조적 교학 용어로 하는 민족학교는 마땅히 학교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본민족 언어를 배워야 하고 민족문화를 전승해야 한다.”(第十二条第二款修改为: “用本民族语言辅助教学的民族学校, 应当设置学校课程学习本民族语言, 传承民族文化.”) 제33조를 제31조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는 마땅히 민족학교의 민족문화교육기지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민족학교에서는 반드시 학생들에게 본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민족특색이 있는 체육 및 문화예술활동을 전개, 민족언어문자, 민족예술, 민족체육사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第三十三条改为第三十一条, 并修改为: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民族学校的民族文化教育基地建设. 民族学校应当重视对学生进行本民族优秀传统文化教育, 开展具有民族特色的体育和文化艺术活动, 促进民族语言文字, 民族艺术, 民族体育事业的发展.”)

2006년 동북조선민족교육연구소에서 신청한 국가 프로젝트 “조선족 중소학교 민족문화교육 체계구축 및 효과적 실시에 관한 연구”가 통과되었다. 그리고 연구의 개시와 더불어 동북삼성 조선족학교를 대상으로 총 68개의 세부 프로젝트¹³⁾를 공모 및 선정하여 연구에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수년간의 연구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족학교의 민족문화교육은 이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크게 탄력을 받았으며 그것은 곧 학교교육과정의 적극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자체의 상황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가하면 또한 교재를 개발하기도 하는 등 민족문화교육의 적극성을 보였다. 또한 프로젝트 연구 기간 총 5차에 걸쳐 민족문화교사교육을 진행하였고 민족문화교육 연구토론회를 개최하였다.¹⁴⁾ 프로젝트 연구 기간 개발된 각 학교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교재들은 다음과 같다.¹⁵⁾

〈표 1〉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문화 교본교재 개발 현황

학교명	교재명	비고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	한글
안도현 조선족학교	“조선민족 예의(제1권~6권 총 6책)” “안도조선족역사(제1권~2권 총 2책)”	한글
훈춘시 제5중학교	“우리민족 역사독본(제1권~3권 총 3책)” “바른 마음, 바른 실행”, “우리 민족 수양 실천” “조선민족의 뿌리에 대한 탐구”	한글

- 13) 이 세부 프로젝트는 길림성 32개, 흑룡강성 20개, 요령성 16개로 총 68개였다.
- 14) 동북조선민족교육연구소(2012), 『조선족중소학교 민족문화교육 체계구축 및 효과적 실시에 관한 연구』, 중국 교육부 “11.5” 교육과학 기획프로젝트 결과보고서.
- 15) 이 교재들은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의 프로젝트 결과보고회 논문집(2012. 6)에 제시된 학교교육과정 교재 일람표와 연구자가 소장하고 있는 각 학교 민족문화교육교재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학교명	교재명	비고
도문시 제5중학교	“조선민족의 예의범절”	한글
용정시 용정중학교	“조선족언어문자”, “저항시인-윤동주” “조선족민속풍토”, “조선족 전통무용, 악기, 민요”	한글
	“조선족 음식문화”, “조선족 전통체육놀이” “조선족 전통미술설계”, “민족단결은 우리와 함께”	중문
훈춘시 제2고급중학교	“우리 민족 문화 교육독본”	한글+중문
안도시 제2고급중학교	“조선민족간사와 풍속예의”	한글
용정시 용정고급중학교	“가정생활 예절편”, “사회생활 예절편” “일상생활 예절편”, “바른 예절편” “전통명절편”, “민족풍속놀이편” “민족문화갈림-지식강좌”, “조선족 역사편”	한글

〈표 2〉 조선족 산재지역 민족문화 교본교재 개발 현황(길림성)

학교명	교재명	비고
장춘시 관성구조선족 소학교	“조선민족풍속문화-명절(3학년용)” “조선민족풍속문화-예절(4학년용)” “조선민족풍속문화-음식(5학년용)” “조선민족풍속문화-놀이(6학년용)”	한글
길림시 조선족실험 소학교	“민속놀이와 민족풍속(3학년 상, 하 총 2권)” “우리 민족의 음식(4학년 상, 하 총 2권)” “우리 민족의 역사(5, 6학년용 총 1권)”	한글
교하시 조선족실험 소학교	“조선족 기본 예절상식 학습내용”	한글
길림시 조선족 중학교	“민족문화교육교정” (상편-역사편, 하편-민속예의편 총 1권)	한글
영길현 조선족 제1중학교	“조선족민속”	한글

〈표 3〉 조선족 산재지역 민족문화 교본교재 개발 현황(흑룡강성)

학교명	교재명	비고
할빈시 동력구조선족 소학교	“개인, 학교생활예절”(1학년 상) “가정생활예절-우리 민족의 기본예절”(1학년 하권) “일상생활예절-우리 민족의 기본예절”(2학년 상권) “사회생활예절-우리 민족의 기본예절”(2학년 하권) “우리 민족의 전통놀이”(3학년 상권) “우리 민족의 전통명절”(4학년 하권) “한복과 절”(4학년 상권) “우리 민족의 음식”(4학년 하권) “선조역사-애국애족편”(5학년 상, 하 총2책) “우리 민족의 역사”(6학년용)	한글
상지시 조선족 소학교	“민속놀이”	한글
할빈시조선족 제1중학교	“조선민족 예의 교육”, “조선민족역사”	한글
상지시 조선족중학교	“옷놀이”, “그네”, “씨름”, “널뛰기” “줄당기기”, “풍물놀이”	한글
목단강시 조선족중학교	“조선족 수양”(교본교재), “지리”, “역사” “전통미덕교양”	한글
	“조선족언어와 문자”, “중국조선족 역사”	한글
	“음악선수교재”, “조선족중학생 심리건강 교육과 탐구” “조선족 음식과 문화”, “중국조선족민속풍토 소개” “조선족 예의문화교육”	중문
닝안시 조선족중학교	“내 고향, 우리 민족”(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2년)	한글+중문
	“학교예의교육”, “향토지리”, “역사독본” “레절 ning안 풍속”	한글

〈표 4〉 조선족 산재지역 민족문화 교본교재 개발 현황(요녕성)

학교명	교재명	비고
심양시 화평구서탑조선족소학교	“조선민족풍속문화” “미술 학교교육과정-‘沙書’”	한글
심양시 조선족 제3중학교	“조선족상식”	한글
대련시 조선족학교	“예절과 민족전통문화”	한글
	“중국조선족간사”	중문
영구시 조선족고급중학교	“조선민족문화과정”	한글+중문

이상 교재들의 제목과 내용을 통해 본 조선족학교 민족문화 교육과정 개발의 특징을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개발된 교재 제목이 전체 조선민족(한민족)을 대상으로 다룬 경우와 조선족만을 다룬 것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상 제시한 교재들 가운데 18권의 교재가 “우리 민족” 또는 “조선민족”을 제목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교재 제목으로부터 전반 조선민족 즉 한민족의 문화를 다루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하면 조선족이라고 제목에서 명확히 밝힌 교재도 적지 않다. 또 조선족 또는 조선민족을 제시하지 않고 중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 또는 “민속놀이”, “전통미덕교양” 등 용어를 사용한 제목도 있다.

둘째, 내용으로 보면 조선민족의 전통문화를 다룬 교재, 조선민족 전반을 다룬 교재, 지역적인 내용을 다룬 교재, 중국 조선족을 다룬 교재 등으로 나뉜다. 여기서 예절을 다룬 교재는 지역적이면서, 조선족적이고 또 조선민족적인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조선족의 민속을 다룬 교재는 대부분 전통문화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풍속문화”라고 제목을 달고 내용으로는 전통명절, 전통음식, 전통예절, 전통놀이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조선민족 전반을 다룬

교재는 역사를 포함한 교재인데, 길림시 조선족 실험소학교의 “우리 민족의 역사”, 길림시 조선족 중학교의 “민족문화교육교정”, 영구시 조선족고급중학교의 “조선민족문화과정”, 훈춘시 제5중학교의 “조선민족의 뿌리에 대한 탐구” 등 교재들은 전형적으로 조선민족 전반의 문화를 다룬 교재이다. 그중 길림시 조선족 실험소학교의 교재에서는 조선민족의 역사를 단군시기로부터 일제시기까지 다루고, 거기에 조선족의 역사를 한 부분으로 포함시켰다. 그런가하면 길림시 조선족 중학교의 교재 역시 상편 역사편에서 고대 조선으로부터 조선족의 형성까지, 조선의 역사인물, 조선의 역사사건 등 순으로 조선민족 역사문화의 전반을 다루고 있다. 영구시 조선족고급중학교의 경우 조선문화사를 매우 큰 폭으로 다루고 있다. 그 외 기타 교재 역시 대부분 민속, 예절 등 영역에서 조선민족 일반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역적인 내용을 다룬 교재들로는 안도현 조선족학교와 녕안시 조선족중학교에서 개발한 교재들이다. 이 교재들은 본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순수 우리 조선족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련시 조선족학교의 “중국조선족간사”, 안도현 제2고급 중학교의 “조선민족간사와 풍속예의” 등 교재 역시 순수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셋째, 사용된 언어를 본다면 제목과 내용이 모두 조선어로 된 교재, 제목과 내용의 언어가 상반된 언어를 사용한 교재, 제목과 내용이 모두 중문인 교재 등으로 나뉜다. 표에서 확인되듯이 대련시 조선족학교, 목단강시 조선족중학교, 용정시 용정중학교의 일부 교재들은 전체를 중문으로 개발하였고 영구시 조선족 고급 중학교와 녕안시 조선족중학교, 훈춘시 제2고급 중학교에서 개발한 교재는 한어와 중문을 겸용한 것도 있다. 그 밖에서도 목차는 중문을, 내용은 중문과 조선어(한글) 겸용한 경우 등 다양한 언어 사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 이러한 학교들에서는 따로 교육과정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의 조선족학교의 경우 2007년 10월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제시한 민족문화교육 지도의견¹⁶⁾에서는 대략적 민족문화교육과정안 참고로 교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도의견은 조선족중소학교 민족문화교육과정의 실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소학교의 민족문화교육은 정서와 행위 양성의 결합을 중점으로 한다. 조선족의 전통미덕교육과 민속풍토 소개를 기본 내용으로 민족 언어문자에 대한 정서 교육, 기본 레의, 의식주행, 민족체육 등 방면에 대해 체험 교육 위주로 진행한다. 따라서 소학교 1-2학년은 시청각자료를 통해 구체적이고 형상적이며 직관적인 학교환경교육을 진행, 3-4학년은 민족 언어문자의 규범적 사용, 민족전통예의범절, 사회행위, 인간관계 등을 교재를 통해 가르치며, 5-6학년은 비교적 전면적으로 민족의 전통 명절, 의식, 민속습관, 건축문화, 음식, 의복문화, 예술, 체육 등에 대해 소개한다. 중학교 1-2학년은 주로 지정(知靑)합일과 지행(知行)합일을 원칙으로 조선족의 역사문화를 주된 내용으로 애국주의교육과 민족의식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민족문화교육은 지방교육과정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중소학교에서는 1학년으로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필수과목이며 수업시수는 격주 1교시, 학기 8교시로 한다.”

각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 중심 민족문화의 경우 이 실시방안을 참고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 학교 자체에 해당하는 민족문화교육과정안은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상술한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보고서에서 민족문화교육의 내용에 대한 구축과 실시의 건의를 제시하였지만 아직은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각 급 학교에서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이는 조선족의 집거구인 연

16) 延邊朝鮮族自治州教育局(2007), 『延邊州教育局關於在全州朝鮮族中小學開展朝鮮族民族文化教育的指導意見』.

변조선족자치주에 한하는 내용이고 그 외 산재지역의 조선족학교의 경우 이와 같은 전반적인 큰 틀의 방향성 제시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5. 조선족학교 민족문화교육의 문제점

지속적인 민족문화교육에 대한 노력은 조선족학교들의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인 교육성과를 얻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단위 학교의 민족문화교육과정의 개발과 실시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여전히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부족. 하나는 학교 중심 교육과정(校本課程)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지 못하다. 일부 학교들에서는 민족문화교육 수업을 진행했다는 것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교재를 개발했다는 것으로, 또 일부 학교에서는 민족문화교육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민족문화교육과정을 개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학교 중심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개념과 함의를 전제로 교육과정의 체계를 갖추어서 민족문화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한 학교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 조선족, 조선민족, 민족문화, 전통문화 등 개념이 모호하다. 이상 현황 소개에서도 드러나듯이 조선족이라는 개념과 조선민족이라는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 따라 내용 선정에서 조선족문화를 조선민족문화와 혼동하고, 조선족 민족문화와 조선족 전통문화와 혼동하는 등 내용의 규범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개발의 규범화, 체계화 부족.

우선, 학교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 학교나 교사의 교육이념인 왜 개발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목표의식이 부족하다. 정부나 관련 부문의 독촉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발하거나 또는 개발하기 위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민족문화교육은 과연 왜 해야 하고 해서 어떤 효과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동반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무엇을 교육내용으로 해야 하는지, 민족문화라면 어떤 부분을 내용으로 채택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 선정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내용을 선정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선택하는 내용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 선정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내용의 구성이 들쭉날쭉한 현상이 있다. 앞서 현황을 설명하면서 제시하였지만 조선족의 역사, 조선민족의 역사, 본 지역의 역사, 조선족의 레의, 조선민족의 레의, 조선족의 민속, 조선민족의 풍속 등을 일정한 기준이나 논리성이 없이 묶여져 있다. 따라서 내용 선정의 과학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문화 교육과정 내용을 표현하고자 하는 언어의 사용 역시 중문과 한글 가운데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각 학교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 다음으로, 어떻게 실시한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규범화되지 않고 실사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실행되지 않고 형식에 머물러 있다. 각 학교에서는 민족문화교육을 위한 수업시간을 따로 배정한 것이 아니라 기타 지방교육과정의 과목이나 기타 학교 중심 교육과정과 한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실상의 민족문화수업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 프로젝트가 있거나, 공개강의를 요청받아 수업참관이 있을 경우 민족문화수업 또는 활동, 그리고 교재개발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 민족문화를 위한 일상적인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민족문화 교육과정은 학기말이 되면 시험의 압력으로 모든 수업시수를 시험과목이 점해버리기 때문에 중단해 버린다.

마지막으로 평가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민족문화교육이 용두사미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 또는 교재를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평가체제까지 완벽하게 개발하는 학교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민족문화교육 또는 교육과정 개발의 최종 목적은 프로젝트 완성용 또는 상급의 참관이나 평가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버렸다. 실제 학생들이 도달한 민족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평가하

는 기제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민족문화 교육과정을 개발 및 실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도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족문화교육과정의 개발이 정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제시한 것처럼 학교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부족으로 전반 민족문화교육과정을 개발과정에서 교육과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국 차원에서 제시한 지방교육과정으로서의 민족문화교육과정 시행 지도의견을 참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계획된 교육과정의 개발과 함께 잠재적 교육과정 또한 염두에 두어 두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잘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교사의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민족문화교육과정의 보다 질적인 개발과 교학을 실시하려면 무엇보다 전담 교사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조선족학교에서는 민족문화교육 교사로 대부분 조선어문교사나 역사교사, 심지어 학급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다.¹⁷⁾ 이 교사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학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민족문화교육을 담당한다고 해도 겸직이므로 적극성이 부족하다. 한편 조선어문, 역사는 시험 부담이 크고 학급 담임의 경우 학급의 학업성취도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과 관계없는 민족문화교육을 간과하는 현상이 허다하다. 또한 조선족교사들은 기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이동 등 사회적인 유희과 낮은 임금 사정으로 사업 적극성이 저하되어 있는데다 대부분의 조선족 학교 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45세 이상으로 직무 권태기에 들어선 상황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직무만족도 내지는 책임감이 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¹⁸⁾ 따라서 조선족

17) 崔成學(2014), p. 42.

18) 중국 조선족사회의 인구이동의 문제는 조선족학교 교사진의 불안정을 초래하였고 상당히 많은 교사들이 지금도 방학기간이면 한국에 가서 몇 달간이라도 용돈을

교사들에게 민족적 사명감과 헌신정신을 요구하는 민족문화교육을 진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민족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교사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넷째, 자원의 개발과 활용 부족. 조선족학교에서 민족문화 교육과정 개발 및 실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우선, 조선족 서적 출판을 전담하는 출판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출판된 민족문화 서적이 제한되어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우 조선족, 한족 학생의 과외독물 공급량의 비례는 1:67이다.¹⁹⁾ 또한 인터넷 자료²⁰⁾ 역시 적을 뿐만 아니라 정확성과 신뢰도의 부족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으로, 민족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학교 당국,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지역사회와 관련 전문가는 민족문화 교육과정 개발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이라 하겠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인적자원의 유기적인 결합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섯째, 정책과 행정적 지원의 부족. 민족문화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을 위한 학교 당국의 적극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미 개발된 민족문화 교육과정도 지속

별고 있다(김해영(2014), p. 99). 실제로 2014년 8월 말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학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들의 인터뷰 과정에서 조선족 선생님들의 책임감과 민족사명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 畢淑梅(2014), 『改革開放以來 吉林省 少數民族教育 發展現狀及 面臨的 問題』, 『民族教育與 我國 ‘多元一體’文化格局的 形成』, 中國人類學民族學2014年年會 民族教育學專題會議 論文集, p. 205.

20)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국 홈페이지 한글판인 중국 조선족 중소학교 교육교차자원 넷에는 민족문화 코너를 설치하여 민족문화 자원을 비치하고 있지만 조선족학교에서 개발하는 민족문화 학교 교육과정의 자원으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http://www.koreannet.cn/>).

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지속적인 교육과정 건설과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적, 행·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

3. 조선족학교 민족문화 학교교육과정 개발의 개선 방향

3.1. 조선족학교 민족문화교육의 원칙과 학교교육과정 개발의 원칙

민족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교육과정의 보다 과학적인 개발은 전 반 조선족학교의 민족문화교육 원칙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족학교의 민족문화교육의 실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 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²¹⁾ 즉 주류인 한족문화와 소수민족문화의 결합, 소수민족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결합, 현실생활과 학생실제에 접 목, 지행합일(知行合一), 학교와 가정 및 사회교육의 결합, 문화교육과 종교의 분리 등이다.

그렇다면 학교교육과정 개발의 원칙은 어떠한가?²²⁾ 우선, 학교교육과정은 학교가 국가와 지방의 교육과정에 대한 실행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개성 발전과 학교의 운영 특색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학생의 발전 수요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진행한 기초 위에 지역과 학교의 교육과정 자원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자체적으로 기획, 설계, 실시 및 평가하는 교육과정이라 하겠다. 이는 학교의 교육철 학과 운영이념을 반영, 자체적 교육자원의 우월성을 잘 파악해야만 개발 이 가능하다.

잘 개발된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와 학생 및 교사들의 전반적인 발전을

21) 俞永虎·金明鐘(2012), 『開展朝鮮民族文化教育的原則與目標』, 『中國民族教育』2012(5), pp. 9-10.

22) 吉林省 教育廳(2006), 『吉林省中小學校本課程開發和實施的指導意見』.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국가와 지방교육과정의 단위 학교 실행과정에서의 부족을 보완함으로써 학생들의 소양을 한층 더 승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다음,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의식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개발에서의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인지함으로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학교의 교육자원이 더욱 풍부해짐으로써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사회발전의 수요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첫째, 학생의 발전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 학교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교육과정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학생들의 실제적인 수요와 흥미 및 그들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전면 발전을 시종일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적합한 교육과정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과 학교 자체의 실정에 맞는 학교 및 사회구역, 기타 교육과정 자원을 충분히 발굴하여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의 개발은 반드시 수업시수 및 실시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 및 지방교육과정과 이념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학교의 주된 교육과정은 역시 국가교육과정과 지방교육과정이므로 우선 이를 충분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의 교육과정개혁의 지도사상 및 목표를 충분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학교교육과정을 국가 및 지방교육과정의 단순한 연장선 내지는 확대 과정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3.2. 민족문화 학교교육과정 개발의 개선 방향

이상 조선족학교의 민족문화교육 운영의 원칙과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원칙에 따라 단위 학교의 민족문화 학교교육과정 개발에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3.2.1. 민족문화 학교 중심 교육과정 내용 개발에 대한 개선 방향

첫째, 조선족 민족문화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유의해야 한다.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의 민족문화, 세계 조선민족으로서의 문화, 중국에 이주 정착하여 조선족으로 되어가면서 형성된 조선족 문화와 이주 이전 수백 년을 거쳐 형성된 조선족 선조들의 전통문화 개념을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조선족은 19세기 60년대 본격적으로 중국 경내에 이주 및 정착하기 시작한 과계민족이다. 당시의 조선인들은 이주, 정착 이후 조선반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농경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초기 조선인들의 이주는 결국 그들의 문화를 함께 중국 이주지역에 이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150여 년의 조선족 역사를 통해 그들의 문화는 본래 조선반도의 문화에 비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 문화 속에는 조선족이 중국에서 정착 및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전 및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므로 현재 조선족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는 이미 한국이나 조선의 문화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차세대에 가르쳐야만 한다. 따라서 민족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조선족, 조선민족과 민족문화, 민족 전통문화 등 개념은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를 중심으로 관련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민족문화 학교교육과정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라 하지만 학교 내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그

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협동이 필요하다. 우선, 학교의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협동을 통해 필요한 교육자원 및 인적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다음,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동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간의 협동이 필요하다. 일부 학교의 경우, 특히 농촌 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민족문화교육과정을 개발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 학교가 필요하다. 그런가하면 이러한 협동의 과정에서 이론적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학의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단위 학교와 대학의 관련 전공과의 적극적인 협동은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 이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로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문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협동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협동의 과정에서 학교 중심의 민족문화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충분히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체계화된 교육과정 개발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학교 중심 민족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 반드시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및 평가에 대한 설계와 교사교육 및 교육과정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개발해야 한다. 교재만 개발하거나 교육내용만 개발하거나 교수방법이나 모형만 개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통 하나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구성요소와 요인들은 목적과 목표, 교재, 혹은 내용, 학습활동, 평가이다.

넷째, 학교와 교사, 학생 맞춤형의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학교의 실체로부터 출발하여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의 실체에 맞추어 맞춤형의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기타 학교와 차별화된 민족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에 주력해야 한다.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학교만의 교육과정 개발을 강조해야 한다. 즉 본교의 특색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기타 학교와 직접적인 차별을 보여줄 수 있는 학교의 역사적 발전과 그 과정에서 축적된 학교만의 문화, 그리고 현재 학교의 다양한 이념과

교육철학을 충분히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를 이해하는 경로를 마련하게 되는 것으로 학생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발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은 지방교육과정으로서의 민족문화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으로서의 민족문화 교육과정의 구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3.2.2. 조선족학교 민족문화 교육과정 실행의 개선 방향

첫째, 학교당국의 노력과 교사교육 및 연수 등을 통해 교사의 자질 향상 및 민족사명감과 헌신정신을 발현해야 한다.

조선족학교는 조선족의 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또한 조선족학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조선족의 민족문화를 제외한 조선족학교는 그 가치를 운운하기 어렵다. 민족문화에 대한 보존과 재생산 및 전승은 조선족학교의 존속에 관계되는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주류문화를 중심으로 국가교육과정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체제와 제도는 학교와 교사로 하여금 평가내용에서 배제된 민족문화에 대한 고민을 쉽게 망각하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학교와 교사는 고도의 민족사명감과 헌신적 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민족문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와 교사는 반드시 시시각각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조선족학교이며 우리의 교육대상은 조선족의 후대들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민족의 문화를 전승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학교와 교사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문제로 되며 교사들의 민족의식은 궁극적으로 조선족학교 민족문화 교육의 성패와 직결되는 것이다.

둘째, 학교의 교육철학 및 운영이념, 교육목표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학교 중심의 민족문화 교육과정은 한 학교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므로 그 학교의 교육철학 및 운영이념, 교육목표를 떠나 논의할 수 없

다. 따라서 전반적인 민족문화 교육과정의 개발과정은 학교의 교육철학 및 운영이념 교육목표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야 한다.

셋째, 계획된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결합해야 한다. 계획된 교육과정은 학교가 민족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 실제적으로 실행됨을 공표하는 외현적 교육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와 교사가 명시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성과 및 그런 성과를 안내해주는 과정을 의미한다.²³⁾ 이를 테면 민족문화를 표현하는 학교의 교정문화 및 주랑문화, 그리고 교사들의 언어 등이다. 학교 중심의 민족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과교육과 민족문화교육의 결합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민족문화교육은 단순히 민족문화 교육과정이라고 명명한 수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선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 설령 그것이 국가교육과정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각개 교과 영역에서 민족문화에 대한 교육이 가히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조선족학교의 경우 조선어 문이나 한어문 및 사회, 사상품성과 등 영역은 민족문화를 적절하게 융합시켜 운영하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자연 및 외국어 영역도 겉보기에는 민족문화교육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화교육을 결합시킬 수 있다. 그것은 필경 조선족 교사와 조선족 학생들이 함께 운영하는 교과수업인 만큼 그들의 문화적 배경이 모두 조선족의 문화라는 점에서 충분히 그 문화적 특성을 체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와 교사는 학교 중심의 민족문화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교사와 학생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 문화적 바탕이 조선족 민족문화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정 영역에서 민족문화교육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한

23) Murray Print 지음, 강현석 외 옮김(2006), 『교육과정 개발과 설계』, 서울: 교육과학사, p. 36.

다. 이는 민족지역 학교의 민족문화 교육과정 개발의 이론적 기초에 근거한 것이다.²⁴⁾

다섯째, 민족문화 교육과정의 개발, 실행,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민족문화 교육과정은 한번 개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실행과 연구의 과정에서 재개발되고 수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또한 그 개발과 실행 및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및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으며 그 역시 민족문화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은 지속적인 이론적 지도를 병행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지역사회나 대학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단위 학교에서 자체만의 교육과정을 자체로 개발할 경우 이상 학교 중심 민족문화 교육과정 개발의 개선 방향을 참고하여 개발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민족문화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방향성을 견지하면서 학교에서는 민족문화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를 선정, 개발의 모형을 채택 또는 학교 실정에 맞게 새롭게 개발, 학교 교육과정 개발의 구체적 프로세스와 지침서 개발 및 제작, 구체적 실행방안을 구안함으로써 학교 중심 민족문화 교육과정의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4. 결론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민족문화 교육과정의 개발은 형식적인 절차나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조선족이 중국이라는 다민족 국가에서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염두에 두는 중대한 문제이다. 즉 조선족의 존속 및 조선족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24) 王監(2011), 『中國少數民族教育政策體系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pp. 345-348.

매우 관건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조선족은 우선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기타 민족 내지는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민족, 나아가 중화민족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될 때면 소위 말하는 민족의식과 조국의식 및 애국의식이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곧 소수민족교육으로서의 조선족학교이고 조선족학교는 반드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조선족이 가르치고 조선족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 그 학교가 조선족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교육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선족 학교에서 조선족의 민족문화를 내용으로 학교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반드시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해야만 한다.

또한 조선족을 중국 조선족으로 완벽하게 인정하여야만 그 문화의 깊이와 폭을 진일보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한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의 징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한민족의 문화적 외연을 확대하는 중요한 경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은 반드시 중국조선족이라는 총체적인 정체성을 형성해야만 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한민족은 반드시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조선족의 문화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며 진정 한민족의 넋을 꾸준히 중국이라는 대국에서 당당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자 료】

- 吉林省 教育廳(2006), 『吉林省中小學校本課程開發和實施的指導意見』.
『吉林省少數民族教育條例』(2001).
『延邊朝鮮族自治州朝鮮族教育條例』(2004).
延邊朝鮮族自治州教育局(2007), 『延邊州教育局關於在全州朝鮮族中小學開展朝鮮族民族文化教育的指導意見』.
中國教育部(2010), 『國家中長期教育改革和發展規劃綱要(2010-2020)(試行)』.
_____ (2001), 『基礎教育課程改革綱要(試行)』.
『黑龍江城民族教育條例』(2006).

【논 저】

- 김재춘 외(2010),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김해영(2014), 「연변조선족사회와 민족교육의 관계에 대한 고찰」, 『교육사상연구』 28(1), 한국교육사상연구회.
_____ (2010),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문화교육을 위한 디지털스토리텔링 적용」,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 5, 한국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
Murray Print 지음, 강현석 외 옮김(2006), 『교육과정 개발과 설계』. 서울: 교육과학사.
박금혜(2012), 「조선족중소학교에서의 민족정체성교육의 새로운 접근과 대안 모색」, 『역사문화연구』 41,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_____ (2004), 「중국에서의 조선족의 교육과 문화」,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14,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畢淑梅(2014), 「改革開放以來 吉林省 少數民族教育 發展現狀及 面臨的 問題」, 『民族教育與 我國 ‘多元一體’文化格局的 形成』, 中國人類學民族學2014年年會 民族教育學專題會議 論文集.
崔英錦(2014), 「新時期 朝鮮族節日文化 傳承動態及 教育策略」, 『湖南師範大學教育科學學報』 13(4).

- 崔英錦·姜楠楠(2014), 「我國朝鮮族學校 傳統節日儀式 傳承 現狀與 思考」, 『民族教育研究』 3(25).
- 崔英錦(2013), 「東北朝鮮族學校 傳統文化課程的 實施」, 『教育評論』 2013(3).
- _____ (2013), 「新時期 朝鮮族 傳統文化的 教育傳承」, 『民族教育研究』 3(24).
- 崔成學(2014), 「朝鮮族 傳統文化傳承 及 教育現代化 面林 的問題與 對策」, 『延邊大學學報』 47(4).
- 陳玉偉(2010), 『學校教育中 民族 傳統文化 傳承 現狀研究-以吉林省 朝鮮族 集居區與 散居區 初中爲例』, 中國 延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丁月牙(1999), 「社會變遷中的 朝鮮族 傳統文化 教育」, 『中國民族教育』 1999(4).
- 韓海蓮(2013), 『延邊朝鮮族 歷史文化資源 保護與 開發 研究』, 中國 延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文(2013), 「朝鮮民族文化教育 校本課程 建設 趣向的 研究」, 『現代教育科學 中學教師』 2013(2).
- 金香花·朴婷姬(2013), 「民族聚居區 學校教育與 文化傳承 研究-以延邊朝鮮族 學校爲例」, 『大連民族學院學報』 15(4).
- 金紅仙(2012), 『延邊地區 朝鮮族 中小學 民族文化 課程開發研究』, 中國 延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金華(2004), 『中國特色朝鮮族文化研究』,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 金東勳 外(1990), 『朝鮮族文化』, 長春: 吉林省教育出版社.
- 景志英(2010), 「試論傳承和創新朝鮮族民族文化」, 『延邊黨校學報』 25(2).
- 孔德俊(1999), 「簡述朝鮮民族文化對其教育的促進」, 『民族教育研究』 1999(3), 中國 中央民族大學校.
- 魯朱哲(1997), 『朝鮮民族文化研究』, 沈陽: 遼寧民族出版社.
- 李鳳海 外(1998), 「中國朝鮮族文化與 社會主義精神文明 建設」, 『延邊大學學報』 1998(3), 中國延邊大學校.
- 羅正日(2012), 「黑龍江 朝鮮族學校 民族文化 教育教學 實施與 成就」, 『黑龍江 民族叢刊』 2012(3).
- 朴今海(2013), 『困惑與 反思: 朝鮮族 基礎教育的 現實與 未來』, 延吉: 延邊教育 出版社.
- 朴婷姬·金玲(2012), 「散雜居地區 民族教育與 文化傳承 探析-以吉林省 吉林地區 朝鮮族學校爲例」, 『延邊大學學報』 45(6).
- 全鑫(2013), 『學前階段 朝鮮族文化 課程資源開發與 利用研究』, 中國 西南大學

校 碩士學位論文.

宋建(2013), 『中國朝鮮族教育的 歷史 傳承與 發展戰略』, 『吉林省教育學院學報』
29, 吉林省教育學院.

王鑾(2011), 『中國少數民族教育政策體系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王軍(2007), 『教育民族学』,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王軍, 董艳(2007), 『民族文化传承與教育』,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許明哲(2002), 『論當代 延邊朝鮮族文化 發展戰略』, 『中國 延邊大學學報』 35(1).

俞永虎 · 金明鐘(2013), 『朝鮮族中小學校 民族文化 教育體系 構建 及 有效 實施』,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 연구논문집.

_____ (2012), 『開展朝鮮族文化教育的原則與目標』, 『中國民族教育』 2012(5).

趙剛(2012), 『朝鮮族文化的 性質, 特徵及 其 發展前景』, 『大連民族學院學報』
14(2), 中國大連民族學院.

중국 조선족 중소학교 교육교학자원넷: <http://www.koreannet.cn/>

원고 접수일: 2014년 9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4년 10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4년 10월 30일

ABSTRACT

中国朝鲜族学校民族文化校本课程开发的问题与对策

金海英*

本研究的目的是以中国新课程改革以后朝鲜族学校民族文化教育课程开发的现状为基础, 分析提出朝鲜族学校开发民族文化教育课程的原则. 新课改以来朝鲜族学校为了努力落实国家课程, 地方课程, 校本课程三级管理体系做了很多实践. 尤其延边地区和朝鲜族散在地区将民族文化教育纳入地方课程与校本课程, 在研究, 实践, 以及开发课程方面付出了相当多的努力. 结果民族文化教育课程的开发与实践得到了较丰硕的成果. 然而尚存在多数不足, 如: 教育课程体系不全, 内容开发缺乏科学性, 课程资源的搜集和配置的缺乏, 教师素养有待提升等. 因此本文试图从教育课程的内容与实行两方面提出朝鲜族学校开发民族文化校本课程的对策. 包括明确朝鲜族民族文化相关的概念, 学校与教师的民族使命感与奉献精神的发扬, 反映学校的教育哲学与管理理念, 开发教育课程体系, 开发和实施及研究等. 借此朝鲜族作为中国少数民族, 将民族文化为媒介确认其民族认同感. 总之, 朝鲜族必须形成以中国朝鲜族的整体认同感, 韩半岛与全世界朝鲜族也必须承认这一点. 只有这样朝鲜族文化才能够长足发展, 将朝鲜族的民族情结在中国发扬光大和继续传承. 这种民族文化的传承也只有在学校教育, 才能够最系统, 最稳定地进行.

* 教育學科, 中國延邊大學校